

일반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강화



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존에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관리 중인 방한대(마스크)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단계 상향 조정을 입법 예고하였다.

○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 소재 마스크,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부직포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음.

○ 미세먼지·유해물질·비말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현재까지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‘방한대’로 분류하여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“안전기준준수”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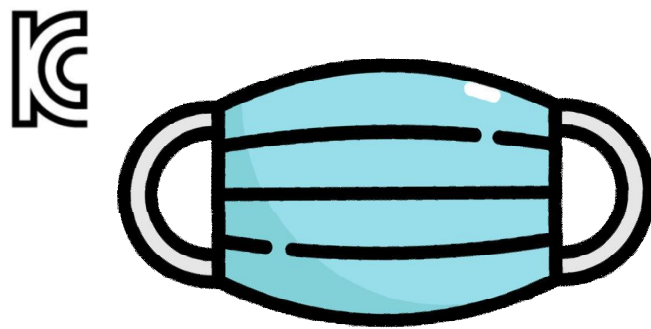
* “안전기준준수” 등급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(18.7월 시행)로서, ① 국가통합인증마크(KC) 미부착, ② 시험·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기준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임

○ 안전기준준수 품목은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.

[안전기준준수 vs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]

구 분	KC마크 부착여부	시험·검사 의무	성적서 보관의무	성적서 제출의무 (요구시)
안전기준준수	X	X	X	X
공급자적합성확인	O	O	O	O

- 이와 관련하여, “방한대”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기존 [안전기준준수] 단계에서 **[공급자적합성확인] 단계 품목으로 등급을 상향조정**하고, 명칭도 기존 “방한대”에서 **방한용 · 패션용 · 스포츠용** 마스크로 범위를 확대하여 변경할 계획임.
- * 안전관리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.



- 관리단계가 상향되면 앞으로는 제조 · 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(KC)를 부착해야 하며, 제품의 출고 · 통관 이전에 시험 · 검사를 받아야 함.
-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 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.

◆ 입법 예고기간(7.13~9.11) 동안 각계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 예정